12일 Market Index
코스피 5342.73 (-32.63)
코스닥 696.53 (-8.57)
금리(국고채 3년) 3.729 (0.000)
환율(원·달러) 1330.7 (-2.9)

metro 경제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1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하나금융그룹

뛰는 집값에 전세대란까지 '공급난 경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내년 전국 매매가 2% 상승 전세가격은 4.5% 상승 전망 공급·건설경기 회복도 더뎌

내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셋값은 공급 부족에 실거주 중심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의 두 배 넘게 뛸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7년 건설·자재·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2.0%, 전세가격은 4.5%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매매가 상승률은 2.5%에서 낮아지는 반면 전세가 상승률은 3.6%에서 높아진다.

◆ **집값, 수도권 3.0%↑ 전망**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3.0%, 지방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전·월세 가격 상승과 서울 중심의 매수 수요가 가격을 지지할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영향을 받는 영통·동탄·기흥 등은 특별급여 지급 등 구매력 개선 요인도 있어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가격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도권 상승률은 올해 연간 전망치인 4.8%보다 낮아질 것으로 봤다. 그동안 누적된 집값 부담과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출한도 제약 등이 추가 매수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세제 등 정책 변화로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방은 수요가 있는 입지부터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입주율이 수도권보다 낮고 미분양 증감도 지역마다 다른 만큼 지방 시장 전체의 회복보다는 산업기반·입지·신규 공급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은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됐다. 올해 연간 전망치도 3.6%에 달하지만 내년 전망은 4.5% 상승이다.

김 연구위원은 "2023년 급감한 착공이 준공·입주 감소로 이어지면서 신규 전세 공급이 늘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며 "1주택 실거주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전세 매물이 줄었고, 매수를 미루는 수요도 전세가격을 끌어 올리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李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시삽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건설현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현 충남지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 대통령, 이 회장, 박문성 삼성전자 우수직원.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충청·호남·영남 차질없이 투자"

이재명 대통령 삼성 반도체 팹 건설현장 방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충남 아산의 삼성전자 반도체 첨단패키징 팹(Fab) 건설 현장을 찾아 "충청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영남권의 모든 투자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돼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날 착공을 기념한 사업은 아산의 반도체 첨단 패키징 팹과 첨단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세종의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성능 기판 제조시설 등 3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아산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에 참석해 "오늘 이곳 충청에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새롭게 바꿀 3개의 첨단 투자사업이 힘차게 첫 삽을 뜨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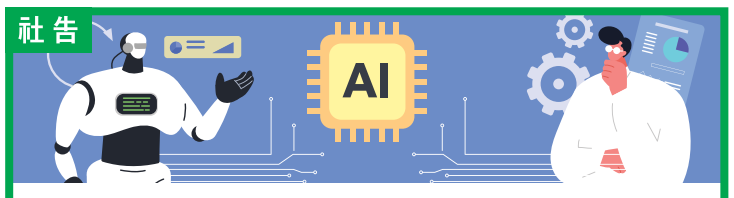
이날 착공식은 '대한민국 초격차, 충청에서 펼쳐집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충청권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에 총 46조원을 투자해 HBM 생산라인 5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패키징 팹에 6조원, 첨단 장비 투자비 40조원이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과 정부는 바로 이곳 충청에서 초격차 산업강국을 향한 담대한 투자계획을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우리는 그 약속을 현실로 바꾸는 현장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社 告



메트로경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언론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가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을 개최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전환(AX)'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제 AI을 도입해 업무에 활용하는 AX는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일부 앞선 기업만 쓰던 기술이 이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퍼지고 있습니다. 다만, AI는 업종마다 쓰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쓰는 방식과 금융업이 쓰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내 산업에 맞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AX 시대의 변화를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산업, 우리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최신 트렌드와 산업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2026 뉴테크놀로지포럼'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 제 :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 일 시 : 2026년 11월 18일(수) 14:00~16:5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프로그램 :
14:20~14:50 기조강연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4:50~15:20 뤼튼테크놀로지스 김지섭 이사
15:20~15:50 LG유플러스 한영섭 AI R&D랩장
15:50~16:20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박기철 상무
16:20~16:50 SK텔레콤 현창호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 문 의 : 포럼 사무국 (02)721-9818(forum@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metro

젠슨 황 사퇴 임박… 'AI 동맹' K-산업계 촉각

SK하이닉스 공급전략 조정 변수 가능성 삼성전자 HBM 등 수주 전략에 영향 공급 다변화땐 물량확대 기회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사생활 논란과 중국 스파이 연루 의혹으로 거취 논란에 휩싸였다.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혼외관계를 인정한 데 이어 회사 내부 임원과의 추가적인 부적절한 관계 의혹까지 제기되면서다. 엔비디아 이사회가 독립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황 CEO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도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와 'AI 동맹'을 구축해온 국내 기업들은 이번 이슈는 개인적인 사항이고 최고경영진 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의 실행과 협력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지난 7월 정의선 회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젠슨 황 CEO 사진을 찍고있다. /엔비디아 X

◆**반도체·AI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변수**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와 가장 밀접한 사업 관계를 구축한 곳은 SK그룹이다. 양사는 지난 7월 5000억달러 이상의 AI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차세대 메모리 개발을 아우르는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DSX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대 2GW 규모 AI 클라우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팩토리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와 장기 메모리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HBM을 비롯한 차세대 AI 메모리 공동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로드맵에 맞춰 메모리 기술을 개발하는 구조인 만큼 황 CEO의 교체로 제품 개발 우선순위나 공급 전략이 조정될 경우 협력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양사는 HBM 공급을 넘어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지난 6월 젠슨 황 CEO와 만나 HBM4E·HBM5 등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장기 공급 협력을 논의했다. 단기적으로는 HBM4와 서버용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 SOCAMM 공급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4나노와 8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칩과 AI 가속기 관련 반도체 생산에 협력하고 있으며, 차세대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황 CEO가 물러날 경우 삼성전자는 기존 HBM 공급 확대뿐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와 파운드리 수주 전략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엔비디아의 메모리 공급망 다변화 기조가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에는 오히려 공급 물량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정점식 "디지털자산 발전 위해 시장 신뢰 뒷받침돼야…관련 입법 나설 것" /사진 뉴시스

▲조국혁신당 "한덕수 석방 전 조희대 탄핵하고 직무 정지시켜야"

▲개혁신당 "국민의힘에 '조작기소 특검' 연대 투쟁 제안"

▲신종마약 '야바' 국내제조 첫 적발…태국인 등 16명 검거

▲최근 6개월 강수량, 평년의 78.5%… 전국 58곳 '기상가뭄'

▲송파구, 담배소매점 보행거리 간편 조회…공무원이 AI로 개발